

제목: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14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자리를 펴고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그의 순종을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지 알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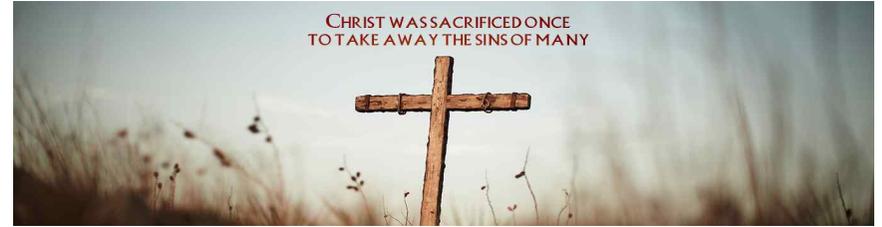
1. 부르심을 _____ 있어야 합니다.
2. 그 부르심에 _____이 있어야 합니다.
2. 끝까지 드리는 _____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혁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창세기 22장 1-14 설교자
 Scripture Reading Genesis 2: 1-14 요약 27 페이지 Presider
- 말씀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보라 너는 두려워 말고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좋은 제품)

예전에는 물건을 사려면 어느 회사 제품을 사라는 이야기가 확실한 때가 있었다. 예를 들어 TV를 한 대 사려면 Sony(소니)를 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값이 비싸도 그것을 샀던 때가 있었다. 물론 지금도 그렇기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많은 제품들이 이름만 바꾸고 내용 제품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 싼 가격의 것을 사려고 알아보면 유명상품과 거의 같은 것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일은 가전제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에 먹는 약에도 있고, 자동차에도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공유되고 있다.

그러다가 보니 이전에 있었던 좋은 제품을 찾는다는 것이 의미를 잃게 되었다. 일본제품이 가지고 있었던 깨끗함과, 미국 제품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품질 등이 이제는 의미를 잃었다는 것이다. 가끔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생긴다. 무엇이 가장 좋은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손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조금 더 품질을 개선하고, 일회용이 아닌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되며, 회사의 이름이 그 품질을 믿게 하는 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된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교회는 많은 것을 잃었다. 세상에서 거룩함, 정직함, 순수함, 새로움, 하나 되는 사랑 ... 그러나 이러한 것들과 함께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잃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교회가 복음을 잃고, 생명력을 잃었으며, 세상을 끌어당기는 은혜를 잃었고,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잃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관심을 갖기에 멀리 가버린 곳이 교회가 되지 않았나 걱정스럽다.

연일 교회에 대한 기사와 이야기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생각한 것이 맞다고 무릎을 치며 교회에 등을 돌린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벌써부터 있어진 다름과 미움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충분한 종교 생활에 심취해 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다.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라도 있고 말씀을 들을 기회라도 있지만 온통 교회에 대하여 잘못 된 이야기로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교회다워야 한다는 뜻에는 다른 신학적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말씀해 주신 대로,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면 될 것이고, 서로 먹이면 될 것이며, 서로 섬기면 될 것이고, 내 것 네 것이 없으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헌신하는 삶을 버리고 교만과 허영 그리고 거짓과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는 그 맛을 잃어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싫은 곳이 되고 세상은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맛이 살아있는 교회, 맛이 살아있는 성도, 하나님 사랑의 맛, 예수님 섬김의 맛, 은혜의 맛, 생명의 맛.....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되어 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회복의 사역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9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서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